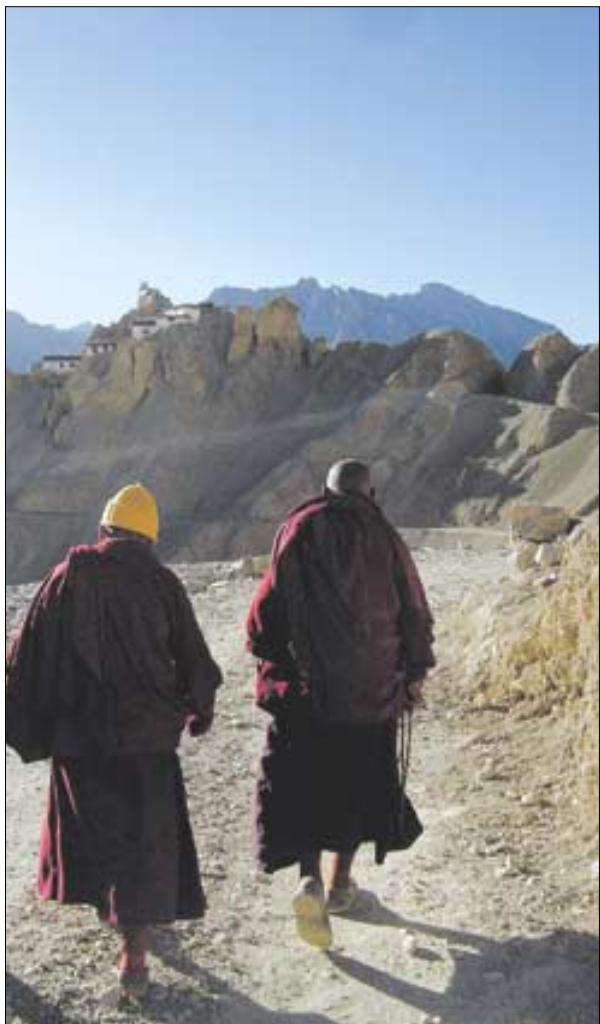


# 인도 오지서 만난 사람들의 쁘스런 삶



영혼의 순례자  
조연현 지음 | 한겨레신문사 펴냄 | 9천5백원



인도와 티베트의 경계지역인 라다크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다람살라로 가는 두 티베트 노승. 왼쪽은 왕갈 스님, 오른쪽은 립상 쩌뒤 스님.

“난 호기심 어린 권유에 마지못한 책 자전거에 올랐다. 그런데 잠시 자제가 흔들렸을 뿐 바위가 구르기 시작하자, 곧 균형을 찾았다. 25년 전 자전거를 처음 탔던 감각을 되찾는 데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 어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업(業)도 이와 같지 않겠는가. 산업도 악업도 한 번 길들여지면 이처럼 몸에 익어 세월이 지나도 다시 나타날 것이다.”

한겨레신문사 종교담당 기자 조연현씨(42)가 2003년 9월부터 인도에서 보낸 1년간은 자기반성과 깨달음의 시간이었다. 그 결실을 묶은 것이 이번에 출간한 <영혼의 순례자-신만이 사는 땅, 인도 오지에 가다>이다.

이 책은 일종의 인도 오지 체험 기행문이다. 지은이는 각 종교의 주요 사원을 돌고 그곳에 있는 성직자들을 만나면서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 등의 역



티베트 스피티의 고산지역에 위치한 당카르의 절들.

서 오는가.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오네.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심에서 오네.”

고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보드카가 위파사나 센터에서는 세계 도마뱀들과 동고동락(?)했다. 또 여행중 배낭속에 있던 꿀물이 새는 바람에 개미떼의 습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은이는 이런 고생을 여행에서 흔히 만나 해프닝이나 무용담의 소재로 치부해 버리지 않았다. 도마뱀들 때문에 밤새 잠을 설쳤지만, 이들이 모기와 독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는 고마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잠시나마 가졌던 도마뱀에 대한 원망을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했다.

티베트의 망명정부가 있는 다람살라에서는 그 곳에 유독 많은 개와 원숭이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번 생각한다. ‘견원지간(犬猿之間)’이지만 극한 상황에서도 마치 싸우는 것처럼 페인트 모션을 쓸 뿐 피터지게 싸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전쟁을 일삼고 죽고 죽이는 것을 서슴없이 하는 인간에게 그만 한 급도라도 있다면...”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한다.

또한 이 책에는 지은이가 신을 믿은 사람들을 만난 기쁨도 들어있다. 간디, 비노바 바베, 데레사 수녀, 메논, 달라이라마 등의 실천적인 삶의 궤적은 물론이고, 노승, 절인, 떠돌이 수도승, 히말라야 여인 등 길거리에서 만난 뜻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행복은 거기가 아닌 여기에 있다’,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다’는 소박하면서 강력한 깨달음을 얻었다.

특히 “중요하고 화를 내는 것”과 “자비심을 내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지, 우리는 유익한 쪽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많은 이들이 수행을 한다고 하고, 오체투지를 수만번 한다하더라도 누군가를 대할 때 평화롭게 미소지을 수 없다면 그런 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하는 달라이 라마의 법문은 여행을 끝낸 지금까지도 지은이의 가슴속에 깊이 남아 숨신다. 지은이는 생각한다. 깨달음을 인도나 히말라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내안에 있는 것이란걸.

한편 ‘신만이 사는 땅’, ‘신을 믿은 사람들’을 담은 80여 컷의 사진들은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인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 글맛을 돋워주는 에피타이어 역할을 하고 있다. 지은이는 “이 사진들은 내 조그만 카메라가 아수라의 눈물을 진주로 토해낸 것”이라는 말에서 이번 사진들에 대한 그의 애착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책 속에 등장하는 사진들은 화려하거나 매혹적인 장면은 많지 않지만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게 만들어 책 장을 쉽게 넘기지 못하게 만든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 종교란 무엇인가

###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 ‘화두’ 배낭에 담고

### 1년간 만행하듯 취재기행

사와 사상, 교리를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붓다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과연 힌두교는 포용의 종교인가’, ‘시크교는 화합의 종교인가’, ‘아힘사를 내세우는 자이나교는 비폭력 종교인가’ 하는 물음과 답을 찾는 종교 순례기이기도 하다.

뿌연 안개가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인도로 처음 떠날 때 지은이의 머릿속 화두는 ‘영혼이 살아 숨쉬는 그곳의 삶과 사람들은 어떻게’였다. 그래서 그는 요즘도 산적들이 득실거린다는 비하르주를 비롯해 북부 끝 히말라야의 스피티 지역과 가로왈 지역에서 최남단 케냐쿠마리까지 오지의 사찰과 아쉬람(수행공동체)을 살살이 훑었다. 대부분 소, 돼지, 닭 등이 거리를 헤매는 오지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의 만행은 고행이라고 느낄 정도로 험난했다.

실제로 시크교도에게는 사기를 당하기도 했으며, 산사태로 길이 끊어져 천길 낭떠러지 아래를 굽어보며 목격지까지 기어가기도 했다. 험박한 고산지대에서는 뼈마디 추시는 고열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때 그의 입에서는 티베트불교의 고승 아티샤 대사의 <입보리행론> 한 구절이 흘러나온다. “고통은 어디에



## 현대연극의 맹점

김효 지음 | 1만5천원 | 연극과인간 펴냄



서양의 고대 신화로부터 동양의 노장사상에 이르기까지 종횡무진 날라드는 풍요로운 인용에, 예술사의 문맥을 짚어내면서도 문제의 핵심을 파고드는 저자의 필력이 예사로운 보이지 않는다.

연극평론가 김 효가 그간 써온 논문들을 한 권으로 묶어낸 이 책은 크게 4부로 나누어져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연극 담론의 핵심인 ‘몸’의 부상이나 연극인류학에서부터 가장 원론적인 개념들, 예술의 기원으로부터 비극과 희극의 장르 가르기 문제, ‘예술성’과 ‘대중성’의 문제, 그로부터 배설된 한국연극계의 리얼리즘 강박증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다. 특히 일관되게 흐르는 저자의 철학적 좌표를 간파할 수 있다. 서구 지성사의 계보를 이으면서도 동시에 반성적인 철학자 들뢰즈, 가타리의 사유를 바탕으로 깔고 다양하게 ‘배치’된 주제를 탐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의 이력도 눈여겨 볼만하다. 79학번 불어과, 탑총 반 소속, 불란서 유학과 등 그가 인생에서 겪은 고뇌들이 고스란히 이 책에 녹아있다. 또 혼돈과 진혼의 시대를 거친 본인의 실존과도 맞물려 있다. 때문에 그가 대학시절 조동일의 책 <탈춤의 역사와 원리>를 헤집으면서 비판한 부분은 그러한 색을 잘 드러낸다. 물론 서구중심주의를 반박하기 위해 저자가 기댄 몇 가지 서구연극이

## 연극계 서구중심주의 해부

론과 철학사상이다. 그러나 저자의 논지는 “우리 안의 서구중심주의”를 집타하고 반성하는데 있다. 논의의 마디마디에서 오리엔탈리즘의 왜곡을 반박하는 우리 학문풍토와 연구현실을 꼬집고 있기에 그렇다.

저자는 무엇보다 보편성이라는 환상 속에 서구의 잣대로 동양의 특수성마저 재단하려는 오류를 지적한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서구 ‘재현’의 역사와 비극의 범주를 이의를 제기한다. 비극은 과연 보편적 장르인가? 저자는 비극은 그리스라는 시대의 정치·사회상황의 산물이지 보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한편, 제의기원설이 허구라는 것을 폭로하면서 그로부터 산종되는 많은 문제들을 포착해 논의의 핵으로 삼고 있다.

이밖에도 ‘비극’이라는 경전에 주술 걸린 우리나라 전통연희 연구와, 정극(正劇) 혹은 리얼리즘에 대해 목을 매는 우리 연극사 연구의 허점을 정돈해주고 있다. 서구의 지배 담론에서 배제당한 비서구, 탈식민지적 관점의 연극적 고찰이자 사유인 셈이다. 그러면서도 저자는 들뢰즈의 ‘생성’의 논리로 우리 연극에 해법을 제시한다. 전체주의적 동일자이론으로부터 탈주하여 타자(생성)의 관점에서 한국연극사 다시쓰기는 역동적인 문화상호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초작업이라고.

원어 실력만을 기워온 듯, 편리하고 협소한 공부만을 하고 돌아온 유학파들의 지지부진한 공부 양에 비해 김효의 스펙트럼은 깊고 넓어 보인다. 서구지성사의 눈으로 다시 한국을, 그것도 서구 지성을 반성하는 탈구조주의적 관점을 반향하면서 한국연극의 현실과 조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동안 이러한 글쓰기가, 적어도 연극판에서는 없었다는 점에서 저자의 글은 파격이다. 나아가 문학과 예술 그 뿌리에 대한 폭넓은 사유를 열어주고 있기에 이 책의 가치는 더욱 크다. 김효(연극평론가·동국대 예술대 강사)

# 탈종공고

- 등록번호 : 제 46-75호
- 사찰명 : 白蓮寺
- 소재지 : 서울 노원구 상계1동 1013-36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5. 1. 19

한국불교법륜종 총무원장 범하

# 불자 희소식

- 언어장애 어린이 (종아포함)
- 학습장애 (지진아, 자폐아)
- 정서불안
- 뇌병변 (어린이가 서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병)
- 각종 정신질환 (간질)
- 각종 신병

※ 뇌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병들이 아니며  
귀신이 들리고 접하여 발생한 병들이 아닙니다

※ 질병발생의 원인을 규명하여 100%  
될 수 있습니다

## 관음정사 무법

도봉구 쌍문 2동 80-21호 (쌍문역 4번 출구)  
02)991-7727

## 謹賀新年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

송광사 대구분원 관음사

주지 元明

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27가 26  
TEL 053)421-3700 / FAX 053)427-1889

대한불교조계종  
재단법인 선학원

## 보성선원

주지 보연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1동 1952-1  
TEL 053)653-7558

## 謹賀新年

# 韓國佛教太古宗 奉元寺

住持 金九海

副住持 石禪岩

總務 李起峰

教務 金太虛

社務 李雲峰

財務 曹曉光

庶務 金光浩

宗會議長 崔惺潭

議員 朴古山, 馬一雲

趙玄聲, 全智岩

韓國佛教太古宗 奉元寺  
大眾一同

韓國佛教太古宗 奉元寺  
觀音會會長 宋花榮 會員一同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전화 : 02)392-3007~8 / 팩스 : 02)393-9450